

## ●●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FDI) 동향 분석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김수범

### I 개요 ...

2013년 화장품산업 해외직접 투자는 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 대양주, 중동, 유럽 지역 순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미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투자 비중이 높음

2013년 화장품산업 해외직접 투자 목적은 현지시장진출이 가장 높은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수출촉진(5.7%), 저임활용(0.3%) 등으로 나타남

현재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 직접투자는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지만 향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직접투자 국가의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경영전략이 필요함

- ◎ '세계투자리포트 2013'(UNCTAD)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중기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임(inflow 기준, 조 달러) :  
1.4('10) → 1.65('11) → 1.35('12) → 1.45('13 전망) → 1.6('14 전망) → 1.8('15 전망)
-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무역뿐 아니라 해외직접투자(FDI)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많은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유사 경제 규모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sup>1)</sup>
- ◎ 따라서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로 분석하고, 투자목적 등을 파악하여 화장품산업 해외투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II 자료 및 분석방법 ...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 분석방법
  - 산업분류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통계 데이터를 화장품산업에 해당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 업종소분류 기준으로 제조업 및 도·소매업으로 재분류함(표 1) 참고)

1) 정진섭, FTA를 활용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전략, 국제경영리뷰, 2012.9

- 분석기간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개년 시계열 분석
- 분석내용
  -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해외직접투자 목적 등

◎ 정의

- 해외직접투자
  - 국내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외국법인 지분인수,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금지급 등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를 말함
- 신고액 기준
  - 투자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해외투자 규모를 사전 신고한 금액
- 송금액 기준
  - 투자자가 국외로 실제 송금한 금액

〈표 1〉 화장품산업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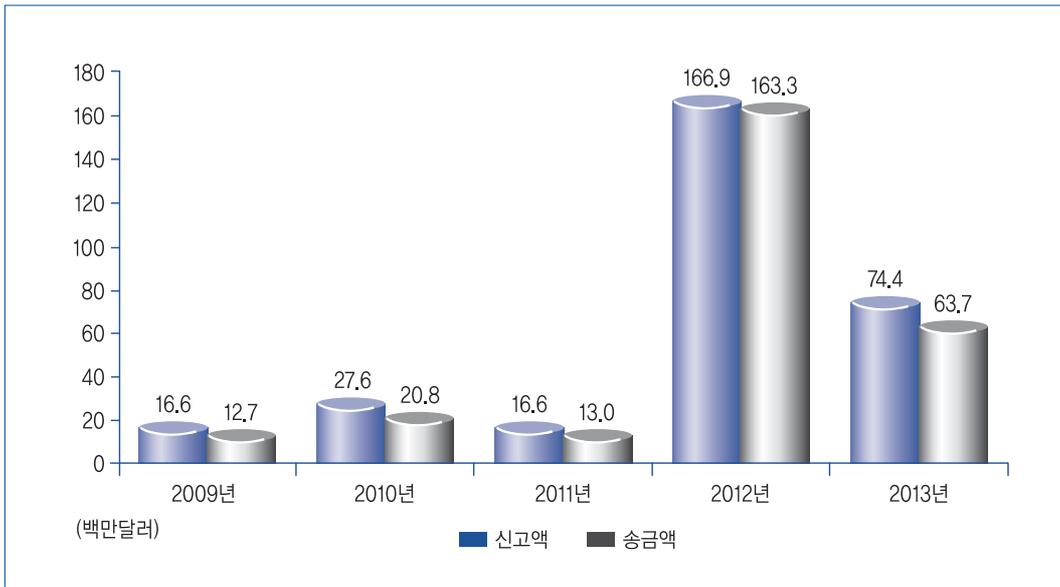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화장품산업	제조업(C20)	· 화장품 제조업(C20433)
	도매업(G46)	· 화장품 도매업(G46443)
	소매업(G47)	·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G47813)

### III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 동향 ...

#### 1. 총괄

##### ■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

- ◎ 2013년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는 전년(16,694만 달러) 대비 55.5% 감소한 7,435만 달러로 나타남
  - 2012년 LG생활건강이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긴자 스테파니’를 약 1,3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연평균치를 상회하는 투자규모가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감소함



[그림 1]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 2013년 송금액 기준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액은 6,369만 달러로 전년(16,330만 달러) 대비 61.0% 감소하였으며, 신고액 대비 송금액 비율은 85.7%로 최근 5년간 실제로 송금된 금액은 신고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표 2〉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고액	16,608	27,618	16,619	166,944	74,352
	-	(66.3)	(△39.8)	(904.5)	(△55.5)
송금액	12,698	20,826	13,029	163,302	63,692
	-	(64.0)	(△37.4)	(1,153.3)	(△61.0)

주 : 괄호 ( )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 ◎ 2013년 화장품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는 도·소매업 4,244만 달러, 제조업 부문이 3,190만 달러로 투자 비중이 각각 57.1%, 42.9%인 것으로 나타나 도·소매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2010년부터 4년간 제조업 부문 보다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화장품이 아시아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국내 화장품 ODM 업체들이 면세점, 백화점, 현지 총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하면서 도·소매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3〉 화장품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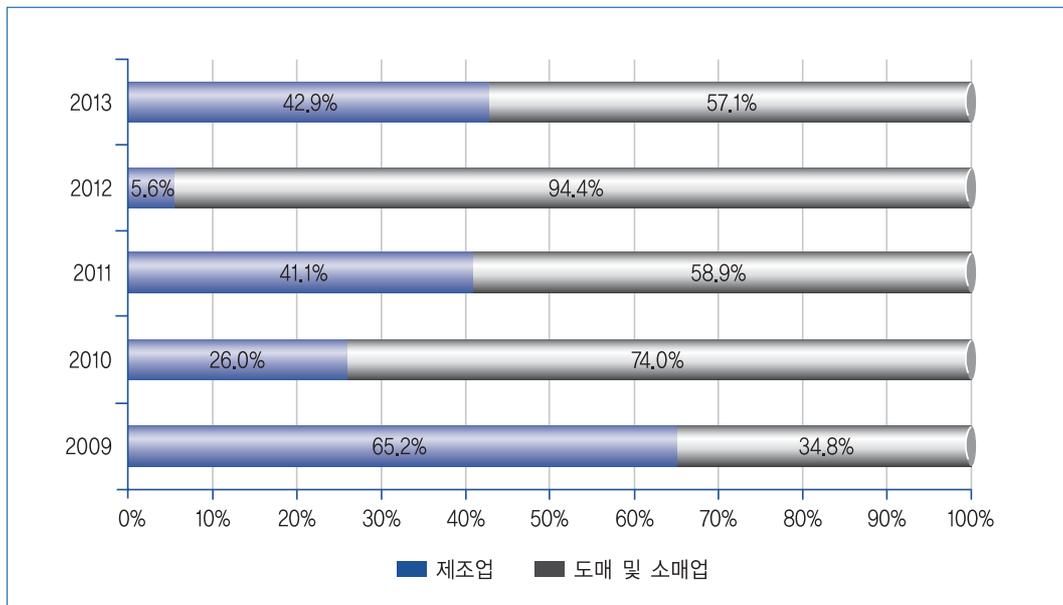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비중)	(증감률)
합계(신고액 기준)	16,608	27,618	16,619	166,944	74,352	100.0	(△55.5)
제조업	10,824	7,182	6,838	9,377	31,905	42.9	(240.3)
도매 및 소매업	5,783	20,435	9,782	157,567	42,446	57.1	(△73.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2013년 화장품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전년 대비 240.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화장품 OEM 기업들이 아시아지역에 설비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임

- 한류가 지속되면서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역시 직접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해외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화장품산업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2.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 2013년 화장품산업 지역별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6,901만 달러를 투자하며 전체 투자액의 92.8%를 차지함. 그 뒤로 북미 512만 달러(6.9%), 대양주 15만 달러(0.2%), 중동 6만 달러(0.1%) 등 순

- 북미 지역의 경우 투자액이 증가세에 있지만 투자규모의 절대적인 수준이 미비하고, 유럽의 경우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투자액이 감소하였다가 최근 2년간 투자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화장품산업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비중)	(증감률)
합계(신고액 기준)	16,608	27,618	16,619	166,944	74,352	(100.0)	(△55.5)
아시아	12,322	21,537	12,159	159,656	69,011	(92.8)	(△56.8)
북미	2,410	2,868	3,611	5,386	5,125	(6.9)	(△4.9)
대양주	-	200	-	580	150	(0.2)	(△74.1)
중동	-	-	-	-	65	(0.1)	-
유럽	755	2,052	623	-	1	(0.0)	-
중남미	1,121	962	226	1,000	-	-	-
아프리카	-	-	-	322	-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화장품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다시 자세히 구분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조업의 2013년 해외직접투자금액이 전년대비 357.1% 증가하였고, 북미 지역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전년대비 12.9% 증가함

- 지역별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아시아의 경우 현지 유통망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시장진출 전략에서 최근에는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진출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 화장품산업 지역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증감률)	
아시아	도매 및 소매업	4,720	18,820	6,147	153,184	39,430	(△74.3)	
	제조업	7,602	2,717	6,012	6,472	29,581	(357.1)	
북미	도매 및 소매업	1,010	1,466	3,011	2,481	2,800	(12.9)	
	제조업	1,400	1,402	600	2,905	2,325	(△20.0)	
대양주	도매 및 소매업	-	150	-	580	150	(△74.1)	
	제조업	-	50	-	-	-	-	
중동	도매 및 소매업	-	-	-	-	65	-	
유럽	도매 및 소매업	53	-	623	-	1	-	
	제조업	701	2,052	-	-	-	-	
중남미	도매 및 소매업	-	-	-	1,000	-	-	
	제조업	1,121	962	226	-	-	-	
아프리카	도매 및 소매업	-	-	-	322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3.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 2013년 국내 화장품산업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에서는 중국이 3,494만 달러로 2012년 2위에서 한단계 상승한 1위를 차지함. 그 뒤로 싱가포르 1,561만 달러, 홍콩 1,069만 달러, 미국 482만 달러, 인도네시아 359만 달러 등 순

  - 우리나라의 2013년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26.5% 감소한 48.0 억불 기록한 반면, 화장품산업의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7.3% 증가함
  - 이는 중국 화장품 시장규모가 2012년 기준 134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4.6%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현지 공장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것에서 기인함
- 상위 5개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09년 86.8%에서 2013년 93.7%로 6.9%p 증가 되어 특정국가에 대한 투자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9년 12개 국가였던 투자국이 2013년에는 18개 국가로 확대되고 있어 해외직접투자 국가를 다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1년까지 해외직접투자 국가 중 2위를 유지하던 미국은 2012년 투자금액이 498만 달러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전년대비 17.5%p 감소하면서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밀려났으며, 2013년에도 비중은 6.5%로 증가하였지만 순위는 4위로 밀려남

〈표 6〉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 상위 국가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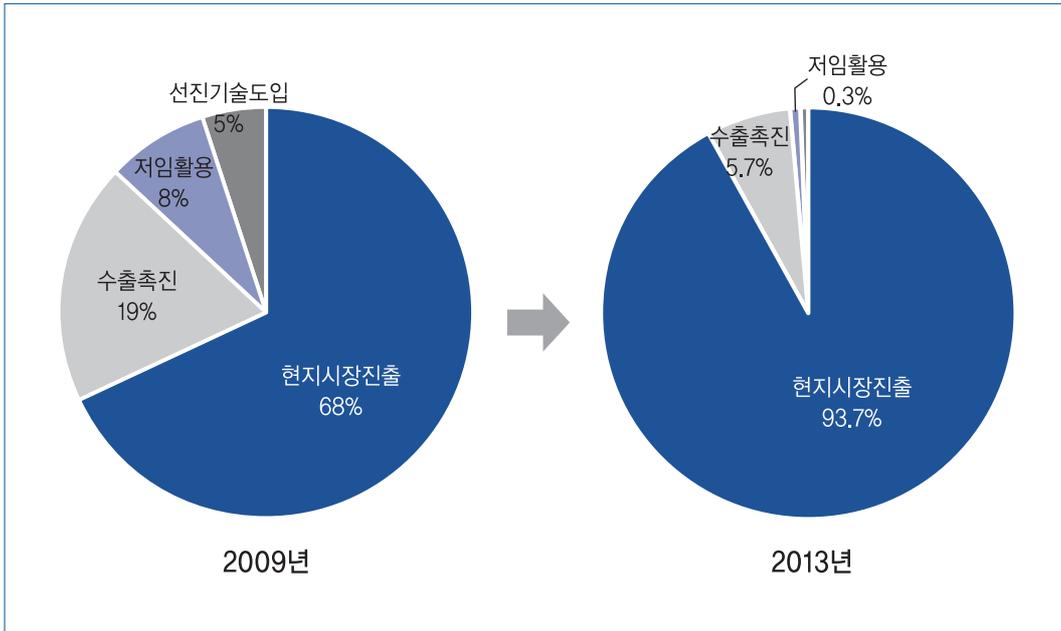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1	중국	7,337 (44.2)	중국	16,453 (59.6)	중국	5,784 (38.4)	일본	120,469 (72.2)	중국	34,941 (47.0)
2	미국	2,410 (14.5)	미국	2,868 (10.4)	미국	3,411 (20.5)	중국	29,784 (17.8)	싱가포르	15,618 (21.0)
3	일본	2,042 (12.3)	일본	2,587 (9.4)	일본	3,071 (18.5)	미국	4,981 (3.0)	홍콩	10,692 (14.4)
4	베트남	1,500 (9.0)	아일랜드	1,450 (5.3)	마카오	1,211 (7.3)	홍콩	2,459 (1.5)	미국	4,825 (6.5)
5	브라질	1,121 (6.7)	홍콩	1,081 (3.9)	인도네시아	1,050 (6.3)	인도네시아	1,940 (1.2)	인도네시아	3,594 (4.8)
기타	프랑스,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		브라질, 말레이시아, 프랑스, 대만 등		스위스, 몽골, 인도, 브라질, 캐나다 등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본, 마카오, 베트남, 몽골, 캐나다 등	
총 투자국	12개국		14개국		12개국		17개국		18개국	

주 : 괄호 ( ) 안의 숫자는 해외직접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4. 해외직접투자 목적

- ◎ 2013년 현재 투자 목적 1위는 현지시장진출(93.7%)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출촉진(5.7%) 및 저임활용(0.3%) 순임



[그림 3] 화장품산업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 국내 화장품산업은 상대적으로 품질과 한류로 인한 인지도에 우위에 있는 아시아지역으로의 시장진출을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1년까지는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20% 내외의 비중을 보였으나 2012년부터 한 자리 수로 떨어졌으며, 저임활용을 위한 투자는 매우 비중이 낮음
  - 또한 2009년과 2010년에는 미국 및 일본의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가 있었지만, 국내 화장품산업이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에 집중하면서 2011년부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화장품산업부문 투자목적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	
						(비중)	(증감률)
합계(신고액 기준)	16,608	27,618	16,619	166,944	74,352	(100.0)	(△55.5)
현지시장진출	11,343	19,291	12,132	163,356	69,665	(93.7)	(△57.4)
수출촉진	3,111	5,239	4,017	2,317	4,275	(5.7)	(84.5)
저임활용	1,347	906	370	270	232	(0.3)	(△14.2)
제3국진출	-	50	100	-	180	(0.2)	-
기타	807	2,132	-	1,000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www.koreaexim.go.kr)

## IV 요약 및 시사점

- 과거 국내 화장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촉진, 저임활용 및 선진기술활 등 다양한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 상승을 이용한 해외시장진출 투자의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 2013년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 목적은 현지시장진출이 가장 높은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수출촉진(5.7%), 저임활용(0.3%) 등으로 나타남
- 2013년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는 지역별로는 아시아, 북미, 대양주, 중동, 유럽 지역 순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미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투자 비중이 높음
- 그러나 향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직접투자의 아시아 집중이 지속될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결국 국내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표 8〉 IMF성장률 전망 ('14.7월 전망 기준)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sup>P</sup>	2015 <sup>P</sup>
전 세계	3.5	3.2	3.4	4.0
- 선진국	1.4	1.3	1.8	2.4

자료 : 기획재정부

- 따라서 국내 화장품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되 선진국으로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집필자 :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김수범
- 문의 : Tel. 043-713-8239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http://www.khiss.go.kr)